

上流 傳統住居 江陵 船橋莊의 解釋

李 熙奉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1. 序論

1-1. 배경

전통주거 연구자는 ‘唯物論者’의 입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물질 중심의 건축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건축을 삶을 담는 그릇이라 말함은 최종 표현은 물체로서의 집이지만 設計意圖라는 ‘마음’과 거주자의 ‘생활’이 선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체 건물과 그 속에서의 삶을 하나의 짝으로 보고자 한다.

논문 제목에서 解釋이라 함은 해석해야 할 물질로서의 전통주거를 “그 대상이 속한 역사적 의미 연관 전체를 이해하는 ‘意味의 理解’를 말한다”.¹⁾ 또 일반 과학적 연구의 기본인 외부인 관찰자로서보다는 內部人(insider) 관점에서²⁾ 심층묘사(thick description)하여 그들에서의 意

味를 찾고자 한다.

오늘날 답사, 실측하여 도면화하고 사진찍어서는 건축의 본질을 알기 어렵다. 현대 시간에 죽어서 박제된 상태의 집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려 ‘전통사회 속에서’ 그 집이 의미를 띄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사람들이 집 속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했을까하는 초보적 질문으로부터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를 찾아내고자 한다.³⁾

한편, 지금까지 한국 전통주거연구는 1단계, 실측조사 도면화 후 2단계, 유형 분류가 주 작업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본 논문에서는 나아가 3단계의 하나로서 解釋의 작업을 한다.

연구대상으로 전통 상류주거인 강릉 선교장을 택한다.⁴⁾(그림1,2) 선교장이라는 특수해에

1) 딜타이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해석학에서 빌려온다. 박순영, “사회과학방법론과 해석학” 김동일의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청람, 1983) 124쪽

2) ‘내부인 관점’이란 문화인류학적 개념으로서, 관찰자의 과학적 etic 접근에 대해(phonetic에서) 특정 문화 내부인의 세계관을 찾는 emic 접근이다(phonemic에서). ‘意味’는 주로 내부인 입장에서 문화요소들(건축물도 그중 하나)의 서로 엮임을 찾을 때 드러난다. Merwyn Garbarino, *Socio-cultural Theory in Anthropology* (Holt, Rinehart & Winston, 1977) 82쪽

3) 생각의 바탕은 딜타이의 역사방법과 유사하다. 철학자 김용옥이 설명하는 딜타이의 「역사이성비판」에서의 해석학적 방법, 은 “인간 삶의 경험”을 개별 집합이 아닌 “의미의 체계”로 파악하려고 그 체계는 반드시 “역사의 지평”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 자신과 창조한 것, 즉 건물은 시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며, 그 특정 시점 속으로 역사가의 입장을 이입할 수밖에 없고, 자기 시대 지평에 제약된 역사가의 관심 세계 속에서 과거가 역사가에게 제시하는 양태이다. 김용옥, 「절차타마대기만성」(통나무, 1987) 18-19쪽

4) 대상 선정 이유는 ① 그 집안인인 국문학자 이기서 교수가 쓴 열화당 발간 「강릉 선교장」이 문헌으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 증보판에 집안 문헌 “완산세고”까지 국역) ②

대한 해석은 전통 상류주거 건축에 알려진 일반성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선교장 원경 (1979 필자 사진. 앞 개천, 논, 뒷산과 초가집들이 보임)



그림2. 선교장 본채 전경

1-2. 方法

우선 기존 도면을 바탕으로하고,⁵⁾ 문헌, 이기서 저 「강릉 船橋莊」과 부록 “完山世稿” 국역 및 기타 자료를 통한 歷史的 方法과, 문화인류학에 바탕을 둔 主提報者의 文化記述 面談 연구와,⁶⁾ 없어진 行態를 복원하는 環境-行態 研究와 歷史 研究의 결합⁷⁾, 다음으로 건축을 별

主提報者와 면담이 가능하고 ③ 필자에게 소시적부터 익숙한 집이기 때문이다. ④ 이 집을 주제로 필자 지도로 김태석이 “선교장 가족성원의 역할로 본 전통주거 공간의 재조명” (중앙대, 97.12) 석사 논문을 썼다.

5)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과 주남철, 「한국주택연구」의 70년대 도면, 이기서, 「강릉선교장」에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김봉렬의 「이상건축」 9710과 주택공사 용역보고서 “전통주거의 계획개념 및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II: 사례연구”의 최근 실측조사 도면, 조선총독부 조사 1930년대 도면이 있다.

6) James Spradley,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 Winston) 1979

7) Amos Rapoport, *History and Precedent in Environ-*

개 對象이 아니라 사람 체험 중심으로 보는 現象學의 생각⁸⁾, 다음으로 필자의 ‘안팎구조’를 이끌어낸 陰陽과 構造主義 생각 등이 바탕이 된다.⁹⁾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하여 비판적 검토도 병행된다.¹⁰⁾

2. 基本 前提

2-1. 시간과 집

오늘날 전통주거는 비록 현대판에 놓여있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횡단면을 잘라 전통 사회판의 짝으로 복원시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¹⁾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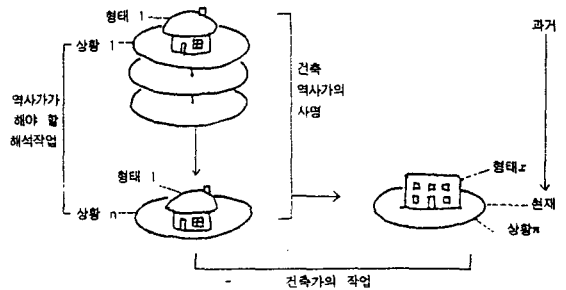


그림3. 역사해석에 있어서 전통판과 현대판

전통사회를 복원하기 위하여서는 역사 기록이 유효하지만 일상 평범한 생활이 기록으로 적힌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당시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해 과거의 行態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과거시간대의 생활인들은 거의 사라졌고, 남은 사람도 자신들의 경험이 서로 약간씩 다르거나, 기억을 잘 못하거나 때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완전 복원하기는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¹²⁾

mental Design, (Plenum Press) 1990.

8) Martin Heidegger, “Building, Dwelling & Thinking” *Basic Writings*에서 天地人橋의 결합체의 생각.

9) 이희봉, “안팎구조- 한국 건축공간의 구조주의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3집

10) 반가 연구의 창시자 고 정인국 교수의 「한국건축양식론」의 서술을 필두로, 최근 선교장 단일주거를 집중연구한 김봉렬 교수의 일련의 논문, 보고서, 잡지 글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11) 이희봉, “한국 건축역사 연구의 비판과 방향 모색” 「건축역사연구」 1집. 250쪽

유교를 바탕으로 한 불평등 신분제의 전통가족제도 6.25 사변 전까지는 유지되었다고 본다. 노비와 소작인들은 갑오경장시 “노비해방령”과 8.15 이후 “토지개혁법”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집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¹²⁾

현재와는 달리 안주인 성할머니가 시집왔을 때인 1939년에 선교장에는 대가족 친척들을 중심으로, 기능직 중인, 각종 일을 담당하는 남녀 노비 등 대규모 인원이 있었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는 직전 1938년에 돌아가심], 종조부 내외, 시아버지, 시어머니, 고모, 출가한 시누이, 시삼촌 부부 등 대가족이 있었다. 전 식구는 한참 때는 4-50명 되었다. 밥 짓는 것 큰 일이었다. 당번은 [노비] 돌아가면서 시켰다. 보름 밥짓고, 보름 청소. 물기는 것, 빨래하는 것으로. 반찬하고 상보고 하는 것은 불박이 기술직이다.(성)”

“한 끼 쌀 5가마 가지고도 모자랐다.(미)”

“8.15 지나고 토지개혁 후 (농지개혁법:1949) 방방 있던 기술자들 [아랫사랑에 있던] 다 없어졌다.(성)”

“큰아버님 때만해도 [1960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었다. 돌아가시고 큰어머니 일 손 부족했지만 사람 구할 수 없었다.(서)”

위의 면담에서 보듯 전통사회 구조가 유지되던 1939-1949년의 10년간이 본 논문에서 중요한 시간으로 복원된다.

2-2. 이름과 實體

첫째, 이름은 대상을 나타내는 記號에 불과

하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한다. 우리말 ‘집’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바, 집1은 보고 만지고 실측도면화하는 물질명사, 물체로서의 집이고, 집2는 추상명사, 즉 내용으로서의 집, ‘집안’할 때의 ‘집’이다.¹⁴⁾ 건축인들이 주로 관심 갖는, 물체 집1은 속내용 집2가 형성한 결과물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이름의 집을 1과 2로 분리한 후 그 결합체로 파악해 나간다.

둘째, 관습적으로 붙여진 이름은 내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 본 연구에서 외부관찰자, 즉 건축학자 또는 건축가들이 붙인 객관적, 보편적, 과학적 이름을 거부하고 내부인 관점의 바른 이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¹⁵⁾

2-3. 基本 疑問

전통 상류주거연구 선구자인 고 정인국 교수의 「한국건축양식론」의 글로 시작한다.¹⁶⁾

한국 상류주택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안동지방에서 본 것과 같은 집약된 건물 배치이고 다른 하나는 분산하여 개방된 배치이다. 후자의 실례로는 선교장 말고도 정읍 김동수 가옥, 경주 최식 가옥이 있다. 남쪽 행랑채에 대문이 들어 있고 서편 대문은 솟을대문으로 사랑채로 들어가고 동편은 직접 안채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출입 대문에서부터 내외체가 완전히 구획된 예는 안동 양진당 뿐이며 혼한예는 아니다. . .

활래정은 선교장 洞口の 큰 蓮塘에 있으며, 그 평면형은. . . 직교하여 누마루 형식을 취하고 팔

12) 두 主提報者(informant)중 안주인 성기희 할머니는 1939년 20살에 시집와서 사변 전 해인 1949년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그후 서울로 옮겼다가 (수시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1973년 다시 정착한다. (성)으로 약칭. 사촌 시동생-형수 관계의 이기서교수는 1937년생으로 4살 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여(1941년) 대학 마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1940-1960). (서)로 약칭. 따라서 1950-1970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또 이교수의 동생으로 출판사 열화당 사장은 (웅)으로 약칭, 과거 소작인이며 현 선교장 관리인은 자녀호칭을 따서 (미)로 적는다. 제보자의 호칭은 논문 글 성격상 존칭은 생략한다. 면담 일부는 김태식이 하였다. 13) 1894년 갑오경장을 통해 법률상 불평등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공식적으로 평등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명문 사대부가로 중심으로 6.25 사변 전까지 유교에 바탕을 둔 가족체계가 유지되었다.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1990) 19, 164-170쪽.

14) 추상명사 관점의 집의 연구로 김광연,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9)는 한국 전통양반주거가 ‘유교의 실천도량’임을 밝힌다. 또 최봉영은 “한국인의 ‘家의 實現’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1. 22쪽)에서, 家門, 家訓, 家統의 세부규범이 전체 질서를 위해 봉사하며, 집은 개인에 우선, 시간을 초월하여 독자적 조직으로 존재하며, 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 이전에 존재되며, 가정, 가문은 물론, 생업으로서의 家業과 家産, 행위규범으로서의 家禮, 종교로서의 家統과 家廟, 역사로서의 家譜와 家乘을 포괄하는 전체적이고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15) 사물의 이름 짓기는 그 사람들의 세상 조직원리를 반영하며, 그 분류체계(taxonomy, or classification)를 찾아나감은 認知문화인류학의 (cognitive anthropology) 기초가 된다. Stephen Tyler, “Introduction to Cognitive Anthropology” in F.Gamst & E.Norbeck ed. *Ideas of Culture* (Holt, Linehart, & Winston, 1976) 177, 180쪽.

16)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4) 391, 401쪽

작지붕의... 정자건축으로...

평면형은 민간형을 따르고 배치는 분산형이다. 토호적인 성격이 강하고 유생적인 성격은 약하며 극히 평민적 생활의 표현이 엿보인다.(강조 필자)

정인국 교수는 다른 집과 다른, 이 집의 특성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 의문, 왜 밖에서 안대문, 즉 여성공간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었을까와 왜 정자는 집 밖 동네 입구에 있을까를 끌어내며, 나아가 각 건물과 공간들은 왜 어떤 목적으로 거주자의 삶과 엮여 있는가를 찾아나간다.

3. 개 建 物 과 空 間 의 分 析

3-1. 이름 ‘船橋莊’에 대한 현대의 오해

지금도 공식화된 이름 ‘船橋莊’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65년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면서 새로 작명된 현대적 이름이다. ‘莊’은 사전적으로 농촌 배경의 農幕에서 비롯되어 별장의 뜻도 가진다. 船橋는 ‘배다리’라는 지명으로서, 전통양반 주거를 地名으로 붙인 예는 없다-강릉장, 경포장 같이. 충효당, 양진당 처럼 한다면 오히려 출판사명이 된 사랑채 悅話堂이 이 집 이름에 해당한다. 과거에 명칭이 따로 없었고 ‘배다리 이씨네’정도이다. 1931년 조선총독부 조사에서도 ‘강릉 이근우씨 맥’으로 나온다. 오히려 4대조 산석공 이봉구가 통천군수를 지내, ‘통천맥’으로는 불리었다. “活來亭記”에 조인영이 ‘仙橋莊’이라 지칭하는데, 지명으로서가 아니라 ‘신선이 거니는 다리’의 ‘뜻’을 갖는다.

김봉렬교수는 「이상건축」의 선행연구에서 莊을 ‘莊園’으로 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⁷⁾

“선교장의 “장”자 돌림은 이 집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다. “장”이라는 집 이름이 익숙한 것은 김구의 “경교장”이나 이승만의 “이화장”과 같은 근대의 정치가들 집이다. 이들 “장”은 개인주택이라기 보다는 많은 정객들이 왕래하고

숙박하던 공공장소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예전 집들의 쓰임새로는 당나라 때 이덕위(李德裕)가 경영했다는 평천장(平泉莊)이 대표적이다. 이는 유명한 별장으로 동아시아 원림 경영의 이상형이었다. 따라서 공적 성격이 강한 주택으로서의 “장”은 별장 정원을 뜻하는 “원”과 합쳐져 “장원(莊園)”이 된다. 선교장은 바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주택이며, 배다리골 전체를 원림으로 삼은 장원주택의 예가 된다.

“장원”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중세 유럽의 봉건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장원경제”다. 장원의 핵심은 영토의 소유형태다. 개인이 가진 대규모 토지를 수많은 소작인(혹은 농노)에게 임대하여 고율의 소작료를 받아 경영하는 농업형태며, 장원의 주인은 단순한 지주의 위상을 넘어서 독립 소왕국의 왕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선교장 주인들이 비록 군왕과 같은 지위는 누리지 않았지만, 장원이 갖추어야 할 제1의 조건, 대토지를 소유하고 거대한 소작인집단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더 큰 장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 집이 전국적으로 이름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정치가는 아니지만, 막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누구 못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사회의 지도력을 갖추어야 했다. 따라서 선교장은 장원이 가져야 할 경제적 인구적 사회적 조건을 모두 갖춘 집이다. 집 이름은 정말 잘 붙였다.(강조 필자)

김교수는 그 후 건축역사학회 학술논문집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선교장 이씨의 발전과 더불어 건축의 목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大莊園’ 건설이 최종 목표가 되었다”고 쓴다. 또 “莊園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건축적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비로소 ‘선교장’의 이름에 어울리는 지역중심의 공공적 주거라는 ‘장원’으로서의 성격을 완성한 된 것”(강조 따옴표 원저자, 진하게 필자)이라고 쓰고 있다.¹⁸⁾

위 선행연구는 선교장 주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에 붙여진 ‘이름’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의미를 추론해 내고 있으나,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선교장뿐만이 아니라 ‘莊’자를 붙이지 않

17) 김봉렬, “가족을 위한 장원의 영역-선교장” 「이상건축」 9710. 131-32. 동일내용을 「삶을 담은 그릇」 저서로 출판.

18) 김봉렬, “전통주택 선교장의 건축이론과 계획개념연구” 「건축역사연구」 14호(1998.3)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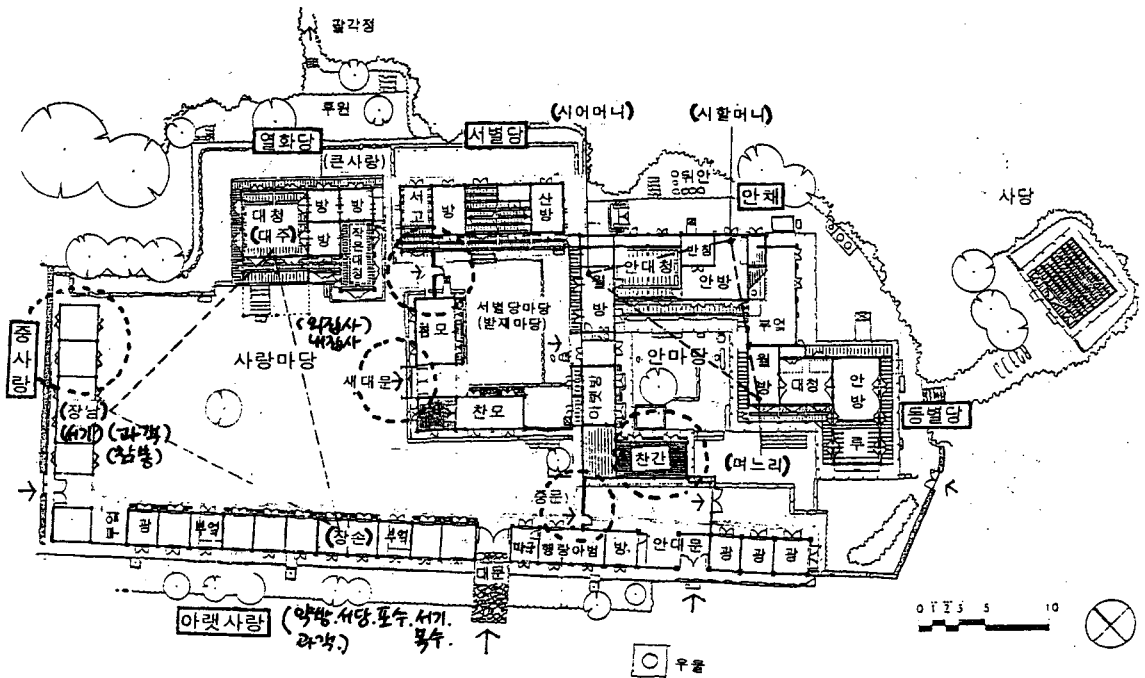


그림4. 선교장 1940년대 수정 평면도 (바탕은 김봉렬 실측도면)

은 경상도 전라도의 명문 사대부가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노비집단을 거느리는, '사회경제와 건축의 복합체'였다.¹⁹⁾ ② 3대 오은 李厚가 당나라 李德裕의 平泉莊에 비유함은, 평천장의 꾸밈의 화려함에 견주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음을 대비하는 뜻, 즉 기껏 조그만 연못 하나 판 것으로 낮추고 있다.²⁰⁾ ③ 莊을 莊園과 붙여서 서양의 봉건 영주(feudal system) 제도에 비유하고 있으나 선부른 비교는 본질의 파악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소유한 막대한 富가 건축에로 나타남을 본다면 이 집은 호사스러움이 거의 없는, 상류귀족 집으로서 아주 검소한 집이다.(뒤의 해석 4-3 '집의 성격' 참조). 정인국 교수의 "구조도 모든 장식

이나 유희적 조작은 쓰지 않고 쉽게 납도리로 순박하게 다루고 있어 더욱 호감이 가며, 다른 주택에서 느끼는 허세와 유생적 고루함이 전연 보이지 않는다."²¹⁾가 더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과거를 해석하려고 할 때 '현대에 붙여진 이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바른 역사 이해의 첫걸음 일 것이다.

3-2. 아랫사랑채: 행랑채는 행랑채가 아니다.

이 집의 특수해를 이해하려면 행랑채를 오해하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행랑'(또는 줄행랑)의 1차 記標(signifier)는 대문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방이며 2차 記意(signified)는 하인들이 머무는 공간일 것이다. 이 집에서 생긴 모양은 행랑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행랑이 아니다. 이 집 거주자들은 행랑채라 부른 적이 없다. 이 곳에 거주한 사람들은 우선 장손을 비롯, 기능직 양반, 즉 약방, 서당, 매포수, 서기, 대목, 소목이

19) 예를 들면, 이수진, 「영남 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1980)에서 토지 소유와 노비를 세력의 기반으로 본다.

20) "경포호에 견주어 말하자면 소 발굽에 물고인것과 같을 뿐이다."라고 규모의 보잘 것 없음을 설명하고 "내 어찌 자손에게 평천장의 경계를 내리겠느냐?"(본문)고 "화려했던 평천장을 이덕유 당대에도 부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말하면서 자손까지 이 장원을 물려주는 생각의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다."(주석) "오은공유고" 이기서 「강릉 선교장」 102쪽.

21) 정인국, 「한국건축 양식론」, 401쪽.

있었고, 과객이 머무는 장소였다.

내부인의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교장에는 **행랑채가 없었다**. 신분 구별이 있는데 어떻게 양반과 하인이 같은 높이의 마당에서 마주보며 살수 있나? 여기서는 양반들이 머물렀다. 좋은 바깥에서 살았다. **아랫사랑이라 불렀다**. 돈은 없지만 명색이 양반인 기술자들이 한 칸씩 차지하며 머물던 곳이다. 그 중에 방트인 곳(2칸)이 장손이 머물던 곳이다. 명색이 장손인데,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둔 것이다.”(성)

“**행랑채 아니다**. 단, 안채쪽 대문간에만 청지기인 원순 할아버지 있었다.”(서)(강조 필자)

행랑아범이 머무는 대문 옆 한 칸을 제외하고는 선교장에서 외형상 행랑으로 보이는 건물은 행랑이 아니라 ‘작은사랑’이다. 객관적 보편적 건축용어인 행랑이란 말을 버림으로써 집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행랑의 기능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선교장 앞의, 안주인 성여사가 시집을 때 있었던 24여호의 초가 가랍집(일명 호지집)이 외계 하인들의 공간이고 바로 행랑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교장은 행랑마당이 없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넓다라고 엄숙한 사랑마당의 공간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전통주거 선교장 행랑은 현재의 본채 건물의 경계라 생각되는 줄행랑을 넘어서 집밖으로 나가게 된다.

3-3. 남성공간: 열화당-중사랑-아랫사랑

陶淵明의 「歸去來辭」의 “悅親戚之情話”(친척과 더불어 정답게 대화나눔의 즐거움)의 식귀에서 따온²²⁾ 悅話堂은 이 집에서 ‘큰사랑’이라 부르고 大主가 기거하는 곳이다.(그림5) 채양숙 계단을 오르면 큰대청과 온돌방 셋이 있고 또하나의 작은대청이 있다. 집의 남성공간중 가장 높은 위계의 건물이다. 거주자 사용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화당은 위계 높은 건물이다. 일제 말기 올라갈 때 오르락내리락하는 하인이 따로 있었다. 대부분 올라가지 못한다. 큰아버님은 낮에 주로 계셨다. 할아버지는 서울에 주로 계셨다. 상주하는 곳보다는

손님들 접대하는 응접실이었다. 밤에는 소실택에서 주무셨다.”(서)

“처음 시집왔을 때 시할아버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었기에 큰사랑(열화당)은 3년상 치를 때까지 비워 두었다. 시아버지는 중사랑에, 남편은 아랫사랑에 머물렀다. 그후에 열화당에 시아버님이 계셨다. 그런데 아버님은 열화당을 잘 안쓰셨다.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체 기억나서일 것이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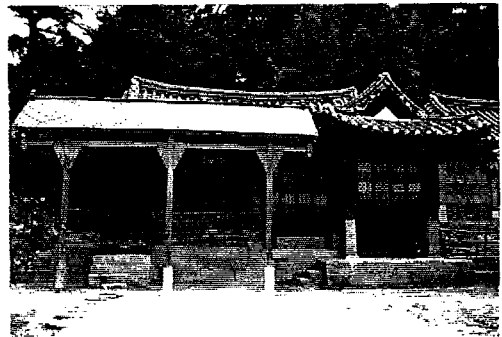


그림 5. 열화당

“목객 중 차장 박기정은 할아버지 친구였는데 한 달이고 머물렀는데 열화당과 활래정을 쓰셨다.”(서)

“열화당에서 세배했다. 세배는 방에서 하고, 뒷방은 별도로 닫혀 있다. 대청은 손님 많이 오셨을 때 사용한다.”(서)

여기서 열화당 건립 연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순조 15년, 181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정인국, 책에 처음 나오고 그후 모든 이가 이어받음), 이기서 교수가 번역한 “完山世稿”중 鰲隱公 遺稿의 “墓碣銘”에 보면, 다음과 같이 열화당 건립 배경이 정확히 나온다.²³⁾

“임진년 [즉 1832년] 이른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성묘를 했다가 중풍에 걸렸다. 이에 자질들에게 말하였다. ‘내 나이 이미 육십이니 일찍 죽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집의 오른쪽으로 한 채를 엮어서 친척과 친구들과 마음을 펼쳐보고 즐거움을 다하면서 여생을 마쳐 볼까 생각한다...’ 곧 집 짓기를 시작하게 하였다... 또 새로 지은 집에도 연명의 ‘친척과 정다운 얘기 나누며 기뻐한다’는 뜻을 취하여 편액을 悅話堂이라 하였다... 이 달 이십일 甲時에 정침에서 생을 마쳤다.”

위 자료를 믿는다면 열화당 건립 연도는 1832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즉 활래정보다

22) 이기서, 「강릉 선교장」 71쪽

23) 이기서, “오은공 유교”중 “묘갈명”, 앞 책 109쪽

14년 후에 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마당 서쪽을 감싸는 중사랑은 1931년 도면과 사진에서, 40년대 사진에는 나오는데 [아랫사랑과 연속 이어져 있음.] 70년대 정인국 도면에서는 이미 없다. 이기서교수도 철들어서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성할머니의 중사랑에 대한 기억은 다음과 같다.

“중사랑엔 과객들이 있었다. 문책을 통괄하는 최참봉을 두어 하룻 저녁 자며 족보, 지식 테스트를 거쳤다. 웃어른(시아버지)께 알려 만나보시라고 하고, 그러면 올라오시라(열화당으로)하고, 통과하면 대접받았다. 과객이 오면 최참봉은 급에 따라 중사랑, 아랫사랑으로 배당하고 주안상 격을 책정했다.”(성)

종합하면, 중사랑은 성할머니 시집은 지 얼마 안되어, 즉 1940년대 후반에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사랑 건물은 1980년대에 복원되었다. 겹집형태로 되었으나 일제시 도면과 사진에는 홑집으로 되어 있다.

선교장 사랑채는 열화당을 중심으로 하여 중사랑과 아랫사랑으로 감싼 사랑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주자들의 사용에 대해, “큰사랑 열화당에는 대주(할아버지), 중사랑에는 대를 이을 장남이 머무르고, 아랫사랑에는 장손, 이렇게 삼각형으로 위치하여 위의 본을 받고 배우라는 뜻이다.(성)”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해보면, 선대에서의 사용 또는 기본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시집오기 직전 시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중사랑은 그후 수년내 철거되었으므로 그 공식대로 사용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김봉렬교수는 열화당을 손님용 게스트 하우스로 못박아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한다.

“동쪽 안채와 동별당이 가족용 주택이라면, 서쪽 열화당 부분은 게스트 하우스다. 열화당은 사랑채가 아니라 공관이다. 사랑채는 안채 옆의 동별당이다. 동별당과 안채는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주택이며, 열화당 부분은 다른 집으로 보아야 한다. 현대의 고위층 공관이나 재벌 저택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다.”²⁴⁾

“장원으로서의 선교장은 하나의 주택이 아니다.

‘대가족’이 사는 주택과 외부 손님들을 위한 주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체이다. 동쪽 안채와 동별당이 가족용 사적 공간이라면, 서쪽 열화당 부분은 접객을 위한 공적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별당이 이씨의 사랑채라면, 열화당은 장원의 주인을 위한 공관에 해당한다. . . 안채 영역의 동별당은 주인의 사랑채였다. . . 동별당 앞은 사랑마당이며. . .

창덕궁 연경당도 이와 같은 형상이다. 출행랑에 사랑채 진입부는 솟을대문을, 안채 진입부는 평대문을 설치했다. 그 때문에 선교장의 동쪽 대문을 안대문, 서쪽을 사랑대문이라 생각하면서 대문이 분리된 희귀한 예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선교장 동쪽대문은 가족용 대문, 서쪽은 손님용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족용 주택과 접객용 주거라는 두 집에 난 별도의 대문이다. 두 대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장 비밀의 열쇠이다.”²⁵⁾



그림 6. 열화당에서의 가족 사진 (남자 어른 +아이 1940년경.)

위의 주장에 의하면 열화당은 사랑채가 아니라 손님용 공관이며 가족용 사랑채는 동쪽 안채영역의 동별당이 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내부인 거주자 면담에 따르면 분명 대주가 머무르는 곳이었다.²⁶⁾ 어느 집이나 손님이 오면 사랑채에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다. 열화당은 손님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남자들의 공간이었음이 명확하다. 원래 悅話라는 당호의 作名도 친척, 특히 형제끼리 사용하라는 취지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이기서교수는 말한다.²⁷⁾

24) 김봉렬, 「이상건축」, 9710, 136쪽.

25) 김봉렬, 「건축역사연구」 42쪽

26) 1940년대 이후 대주인 이돈의는 낮에 주로 거거하고 잠은 열화당에서보다 주로 소실택 또는 동별당에서 잤다고 한다. 열화당에서 자기 앉은 이유에 대해 안주인 성여사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선교장 가족 사진집 1849-1955」을 보면 선교장 열화당 배경의 사진이 10매 있는데,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5매나 된다(그림6). 앞면 담처럼 어린 아이들 세배를 받는 공간이기도 했다. 열화당은 손님은 물론, 친척들도 함께 사용하던 공간이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게스트하우스 공간이라는 의미는 손님용으로 제한된 특수 건물이라는 뜻일 진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과장된 주장은 다음 절의 동별당의 남녀 사용과 더불어 이 집의 본질의 이해에 크게 어긋나게 된다.²⁸⁾

3-4. 여성공간: 안채-동별당

안채는 저서 「강릉선교장」에서 이기서교수의 추론대로 초기 ㅁ자 집으로 시작하였을 것이나²⁹⁾ 사랑채가 열화당 영역으로 빠져나가고, 여성의 독립된 영역으로 남는다. 당연히 안사람이 모든 안살림을 하는 공간이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모두 생존했던, 성할머니가 시집왔을 때의 안채 공간에 대한 거주자 사용 면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채의 중심인 대방(안방)에는 시할머니가 살고, 시어머니는 대청 건너 월방에서 살고, 며느리 나는 동별당 월방에서 (안방과 가까운 쪽) 살았다.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에게 대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에서 그랬다.”(성)

“시어머니는 모든 가사일의 총 책임자다.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가 잡혀 있다. 며느리를 부를 때는 종을 시켜 불러온다. 며느리는 신을 신지 않고도 건넌방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별당에서 땃마루 통해].”(성)

“선교장 안사람은 누구나 안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죽기 전까지 방을 옮기지 않았다. 그 대신 기력이 없으면 집안 관리하는 임무를 다음 대에 물려주었다. 보통 남편이 죽으면 뒤로 물러나 앉는다. 방은 그대로 쓰고, 안살림은 물려주고.”(성)

“당시 과부가 된 여자들 (딸, 며느리)이 선교장 안

채의 아래채에서 머물렀다. 출가한 시누이는 시할머니의 딸인 경우로 안방에서 같이 잤다.”(성)

성할머니는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6.25적화] 건넌방을 물려받았다. 안살림중 음식 만들기가 가장 큰 일이었다.

“부엌에서 밥과 국을 해서 큰 함지에 들고 찬간으로 가서 채려 내온다.”(성)

안채 안마당 앞쪽을 막아 주는 ‘찬간’ [반빗간]은 70년대까지는 도면, 사진에 없었으나 그후 근래 다시 복원했다. 1931년 도면을 보면 찬간 있는 곳이 바깥쪽만 선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터[축대]만 남고(그림 8)³⁰⁾, 1931년 사진에도 건물은 없고 가림담 앞에 큰 장독들이 놓여있다.(그림 7)³¹⁾ “시할머니가 답답해하기에 헐어버렸다 한다.”(성)



그림 7. 장독대로 변한 찬간 자리 사진 (안채 가림용 벽돌담이 보임. 1931조선총독부 사진)

문제의 동별당은 선교장 외부에서 접근사 가장 눈에 띄는 장중한 건물이다. 경농 이근우 때 (1920년경) 건립하는데 배경은 다음과 같다.

“시할아버지 [이근우] 처가에서 처남이 서울서 오서 여기 동별당에서 맞이했다. 그때 ‘자네는 사랑 치장만 했군.’(열화당) 즉, ‘안채가 보잘 것 없군’ 하시는 바람에 그 분 가지자 바로 열화당보다 더 웅장하게 만들었다.”(성)

동별당 평면은 안채의 ㄱ자형을 그대로 반복, 방이름도 안채와 같이 건넌방-안방으로 부

27) 이기서 앞책 54쪽

28) 열화당과 동별당의 해석의 잘못에 대해, 필자의 “계제 논문에 대한 토론-전통건축 선교장의 건축이론과 계획개념 연구” 『건축역사연구』 18호 (1999.3) 119-24쪽 참조 바람.

29) 이기서 앞책, 69쪽 ‘도면 3. 동별당 건립 이전의 안채 평면도’ 참조

30)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三) 江陵郡, 調査資料 第32輯, 1931

31) 이기서 앞책 49쪽 사진, 「선교장 전경」 및 70쪽 「안채 앞뜰에 있는 장독대」 참조

른다. 뒷마루로 안채 안방에 연결되는 안마당에 가까운 쪽이, 안주인이 시집와서 10년간 거주했던 동별당 건넌방이다. 대청 건너편의 동별당 안방은 아래윗방 사잇문을 트면 상당히 큰 공간이 된다. 원래 바깥쪽 일부는 약간 높은 마루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동별당 안방] 연회, 환갑, 혼인잔치 등, 안잔치 전부 했다. 사방 문들 다 떨어져 장소가 하나가 되었다. 대소상은 안채 대대청에서 했다. 여기 용도는 친정 아버지, 오라버니 등 가까운 친척 맞이하고 사위분 오면 썼다. 피치못할 남자들 가끔 사용했다. 들어오는데 조심스러웠다. 예절, 범절, 글씨 배운다. 새로 온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혼시하고 교시하셨다.”(성)

“시아버님이 안식구들 모여라 하면 동별당 안방에 모였다.”(성)

안주인과 면담 결과 동별당은 여성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친정 남자, 피치 못할 경우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안채에 속한 바깥 공간에 해당한다. 이기서교수는 ‘편리하게’라는 말을 강조하며 ‘집안 사람, 즉 ‘당내’ 인사가 갈 수 있었고 ‘편리하게’ 내실로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김봉렬교수는 주택공사 용역 보고서 172쪽의 “선교장 본체의 거주자 이용도 영역 구성도”에 의하면³²⁾ 동별당을 아예 ‘사랑채’로 표기하고 건넌방을 ‘아들’방, 안방을 ‘주인’방으로 표기하여 남성 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나 전혀 뒷받침 근거가 없다. 동별당 건넌방에 며느리가 기거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영역상 안대문으로 들어가는 여성 영역이다. 김교수 주장대로라면 며느리가 사랑채에서 살았다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남자라도 아주 가까운 가족이어야 들어 올 수 있는 곳이다. 후일 시아버님이, 그 후 대주가 된 남편[이기재]이 기거했다고 하나 사랑채 “열화당에서는 병간호하기 힘들어 수발의 편의상 사용했다”고 한다. 전통가족제도, 즉 노비제도가 무너진 현대 시

대의 편법사용일 것이다.

그 주장의 오류의 원인을 다시 한번 추론해보자. 성할머니 시집 초기 10년간(1939-1949) 동별당 월방 거주시 시아버지가 대청마루를 사이에 둔 안방에서 잠자다고 생각하기 곤란하고 [서로 불편하여], 1949년 며느리는 서울로 올라가고, 6.25때 시할머니가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안채 안방으로 옮기게 되자 동별당은 1951년 이후 주사용자가 없는 공간이 된다. 2-1절에서 노비제도가 실질적으로 붕괴된 6.25이후 열화당 건물은 하인 시중없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여, 짐객과 낮동안의 기거만 하게 되고, 전통 질서가 이미 무너진 1950-1980년 동안 생활 편의상, 동별당이 가족 남자의 거주 공간으로도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전통사회 속에서 본다면 동별당은 여성 공간임이 확실하고, 양보해도 약간 개방된 여성공간의 바깥부분이 된다.

3-5. 혼합완충공간: 서별당과 부속채

다음으로 공간구분이 명확히 해석 안되는 문제의 서별당과 그 앞의 ㄴ자 부속채를 보자. 서별당은 여성공간인 안채와 남성공간인 사랑채 열화당 사이 영역에 있다. 열화당 쪽부터 안채 쪽 까지 서고, 온돌방, 대청마루, 마루, 온돌방이 있는 5칸 집이다.

서별당은 서고가 있으므로 당연히 남성공간으로 생각했으나 안주인 성할머니는 여성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더우기 안채 쪽 끝 온돌방을 애낭는 產房이라 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몇 번 더 물어본즉 선대 때부터도 그러했다고 한다. 또 그 방에서 유모가 애기도 키우고, 시어머니의 새며느리 교육용으로도 사용했다.

“시어머니 시집오셨을 때 시할머니가 공부하고 글씨 쓰는것 감독했다. 시어머니는 12살에 시집왔는데, 궁체로 글씨 베끼도록 했다. 20살에 시집 온 나도 시어머니가 시켜서 글씨 썼다.”(성)

한편 김봉렬교수는 “서별당은 집안의 남녀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던 곳”³³⁾이라 설명하고

32) 김봉렬, “전통주거의 계획개념 및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II- 사례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7.12) 172쪽

33) 김봉렬, 「이상건축」 136쪽.

산실을 “여자아이”, 서재 옆방은 “남자아이”로 표기하고 있으나 어디에서도 그에 근거하는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면담에 의하면 오히려 시누, 시고모는 어렸을 때 공부하러 아랫사랑 [행랑채라고 하는] 서당 선생님께서로 나갔었다고 한다.

서별당의 안채쪽 방이 안채와 관련있었으리라고 쉽게 상정된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있던 안채 월방이 원래 서별당과 뒷마루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³⁴⁾ 그런데 근래 서별당 복원시 따로 떨어진 별개 건물로 지어진 것에 대해 성할머니는 속상해 하셨다.

그런데 열화당쪽 끝방인 서재는 분명 남성공간이다. 한 건물에 남녀 공간이 함께 있는 수수께기 건물이 된다. 성할머니는 “책을 가져오라 하면 하인이 책을 찾아서 갔지 책을 읽는 방은 아니라”고 즉 서고로만 기억하여 여성공간성에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기서교수는 “서고는 누마루 형식으로 되어 문을 열면 통풍이 잘되고 마루는 여름철, 방은 겨울철의 독서실로 이용되었다.”³⁵⁾고 서별당을 ‘남성공간’으로 생각한다. “여자들의 교육 훈련이 서별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자들이 책보는 공간”이라고 한다. 두 주제보자의 성별, 시기별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온 것으로 보이나, 김봉렬교수가 주장하는 남녀 아이들 교육공간이 아니었던 것만은 공통된 증언이다.

남성 공간인지 여성공간인지 문제의 해답은 일정때 1931년 조사한 평면도에 있었다. 열화당에 가까운 서고 방과 다른 방 4칸을 분리하는 선이 평면도에 표기되어 있었다.(그림 8) 이것을 남녀분리의 내외담장으로 추정한다. 1940년대 당시 사진을 보면 그곳이 담장으로 막혀있다.(그림 9) 담장은 70년대 정인국 도면에도 남아있다.³⁶⁾ 성할머니에 의하면 서고는 열화당과 마루로 연결되었었고, 담장과 작은 일각대문이

있었다고 한다. 종합하면, 서별당은 열화당 쪽 서고방 하나는 남성공간으로, 여타는 여성공간으로서 내외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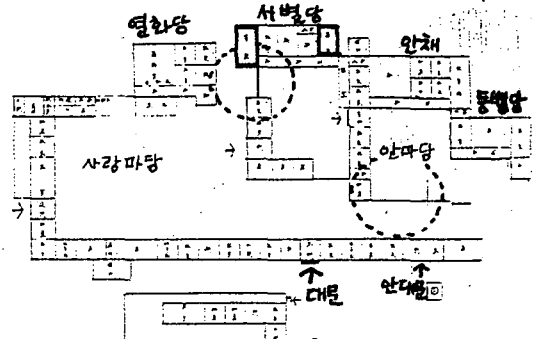


그림 8. 조선총독부 조사 평면도 (1931년)



그림 9. 열화당-서별당 분리 내외담장 (1940년경)

또다른 큰 문제는 서별당 마당을 감싸는 ㄴ자 형의 아래채 건물의 용도와 명칭이다. 김봉렬교수는 논문에서 서별당 앞 ‘ㄴ’자 건물에 ‘硯知堂’이란 당호를 아래와 같이 반복하여 붙이고 있다.³⁷⁾ 34쪽 ‘그림2. 선교장 본채 평면도’에서는 건물명으로 아예 박혀 나온다.

서별당부는 본채인 서별당과 이를 감싸는 부속채 **연지당**으로 이루어진다. ... 서별당이 깊숙한 곳에서 가족들의 연결체 역할을 했다면, **연지당**은 가족영역과 손님영역을 철저히 차단하는 경계물 역할을 했다. **연지당**에는 주로 여자 하인들이 기거하면서 외부 손님들의 동태를 엿보면서 집안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열화당 부분과 안채부분은 ㄴ자 **연지당** 매스로 강하게 분리된다.

연지당이라 이름붙인 건물의 용도는 침모방(성)아니면 보관창고(서)에 불과한데 어떻게 堂

34) 이기서, 앞 책, 73쪽. 선교장 평면도에 나오고, 면담시 이기서교수는 “뒷마루가 딱붙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 깡충 뛰어 건너간 기억”을 함.

35) 이기서, 앞 책, 75쪽.

36) 정인국 앞 책 400쪽

37) 김봉렬, 앞 글 「건축역사연구」 14호(7권1호) 42쪽

號를 얻을 수 있을까 연구자가 의심해보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물론 현지 안내판에는 그렇게 써 있으나, 안주인이 “새대문을 없애고 방을 만들어 새로 붙인 이름이고 물론 현판은 없다”고 한다. 거주자가 편의상 임의로 붙인 이름이므로 역사연구에서는 마땅히 지워져야 할 것이다.³⁸⁾ 굳이 이 서별당 아래 부속채의 내용에 적합한 이름을 붙인다면, 주남철 교수의 ‘중문간 행랑채’가 서별당을 둘러있다는 표현이 더 타당할 것이다.³⁹⁾

원래 사랑마당과 서별당 마당을 연결하던 대문을 지금의 앞쪽 대문으로 1980년대에 성할머니가 옮겼다. “시집오니 ‘새대문간’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막았다.(성)” 새대문 쪽 두 방을 침모방으로, 앞 쪽 방은 음식 담당 찬모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침모는 창을 통해 사랑마당을 내다보며, 미리 신호로 약속하여 (예, 세숫물 떠받는 사람) 눈대중으로 손님의 찻수를 재어 옷을 맞춰주었다.”고 한다.

한편 이기서교수는 ‘침모방’을 “방이 아니고 곳간이다. 증조할머니 [기계 유씨] 장례 때 가매장했었고, 방이 아니고 흙바닥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그 대문을 통하여 바깥 교당마당의 쌀 창고에서 안채로 쌀가마니를 나르는데 중간 인계하는 창고, 또 술을 담아 저장해두는 곳으로 기억한다. 서별당 마당도 받채마당으로 부른다. 한편 1931년 조선총독부 조사 도면에는 서쪽의 침모방이라는 두칸은 ‘온돌’로, 남쪽 세칸은 ‘창고’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상의 상이한 의견을 종합하면 서별당은 남성공간인 사랑채 열화당과, 여성공간인 안채 사이에 있어서 양쪽의 기능이 일부 진출해 있는 일종의 ‘혼합 공간’이 된 셈이다. 또한 그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아래채 건물은 1950년 이전에는 침모, 식모의 여성공간과 저장고라는 중간 영역 내지는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사료된다.

3-6. 活來亭

선교장 들어가는 입구영역에, 본채 대문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자로, 본채 건물보다 오히려 활래정이 더 알려져 있을 정도로 선교장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건물이다.(그림10) “鰲隱公 遺稿”에 의하면, 오은 李厚는 蓮塘을 파서 섬을 만들고나서(갑술년:1814), 그 위에 작은 정자를 짓고(1815), 鏡農 李根宇 때 지금 자리에 땅 쪽에 방, 연못 쪽에 마루인 기자 형태로 확장 중수한다(갑자년:1894년).



그림 10. 활래정

집주인이 빈객을 맞이하여 자연을 감상하려는 의도가 記文에 잘 나와있다.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물이 있음일세”(爲有源頭活水來)라는 주자의 시에서 따온 活來亭은 수많은 문객들이 記文과 詩를 남긴다. 경포호수와 동해바다, 구름, 달밤의 자연을 벗삼아 신선을 노래하고 있다. 연못을 파고 나서 쓴 글은 다음과 같다.

그 넓고 상쾌함이야 경포호에 견주어 말하자면 마른 흙을 뜬우어 놓고 소밭굽 웅덩이에 물 고인 것과 같을 뿐이다. 하지만 편안히 거처하면서 쉬는 때에 신발 끌고 걸어서 올라보면 꽃향기 질개 풍겨 오고 물고기 어른거리는데 술 한 잔에 시한 수로 화평하게 모든 것 얻은 듯 하다면 진실로 경포호만 못할게 없다.⁴⁰⁾

활래정은 남성 사교공간은 물론 급 높은 장기 체재 손님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여름에 개방하여 사용했다. 선교장의 수

38) 앞글 필자의 “계재 논문에 대한 토론” 『건축역사연구』 18호 120쪽 참조.

39)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44쪽

40) 이기서, “오은공 유고”, 『선교장』, p.102.

많은 목객중 단연 차강 박기정이 전설처럼 먼 당시 계속 오르내린다.

“목객중 할아버지 친구인 차강 박기정이 한달이고 머물렀다. 그림 그리고 글쓰는 어른이었고. 열화당과 활래정을 쓰셨다. 여름엔 주로 활래정을 쓰셨다.”(서)
“차강 선생이 항상 봄 가을 사이에 와서 활래정에 머물렀다. 그만큼 대주로부터 신임가는 분이셨다.”(성)

활래정은 이와 같이 빈객을 맞이하는 별도의 남성공간이다.

4. 解釋

4-1. 집의 立地, 영역, 자연으로의 확산

집의 설계시 대지 선택이 맨 처음 이루어지므로 집을 이해하는 데는 입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건축역사연구에서 풍수를 가지고 입지 해석을 하는 연구가 많으나 이조 양반주거지 선택은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이중환은 「擇里志」卜居總論 山水條에서 사대부 주거지로 溪居가 灌溉와 耕耘의 이점이 있어 江居나 海居에 비해 가장 좋다고 하며 경상도 예안 도산, 안동 하회를 예로 든다.⁴¹⁾ 영남 사대부 세력형성을 연구한 이수건은⁴²⁾ 양반주거들이 산간 계곡의 대소지류를 따라 주거지가 형성된 이유를 농지의 관개의 장점과 더불어 避兵 避世에 유리한 지형으로 설명한다. 하천이나 계곡의 물을 막아 보를 설치하여 旱害가 적고 하상이 낮아 洪水害가 적었고 背山 臨水하여 빨감과 부식용 담수어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에 본다면 선교장은 鏡浦湖를 배경으로 그 상류에 펼쳐진 논벌 가장자리에 형성된 湖居라 할 수 있다. 호수로 들어가는 물이 마르지 않는⁴³⁾ 개천주변에 형성된 넓은 들의 토지를 배

경으로 한다. 경포호는 호수의 퇴적화로 인하여 현재 湖岸이 하류로 내려가서 둘레가 십리 4km에 불과하나 당시 문헌에 삼십리로 나오며 배다리라는 지명 자체가 호수를 가로질러 초당으로 가는 배의 나루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개기 당시 호수가 거의 집앞까지 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한편 개기 시조 이내번이 모친 권씨와 함께 충주에서 옮겨와 처음 자리잡은 곳은 현 선교장의 1.5km정도 동쪽인 경포대 부근의 모새골(亭洞)이다.⁴⁵⁾ 母 안동권씨의 친정인 오죽헌 가까이 자리잡은 것은,⁴⁶⁾ 모계확대가족 성격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후 가산이 일기 시작하여 너른 터를 찾던 중 집안 전설에 나오듯 족제비를 따라가 현재의 위치로 자리잡는다.⁴⁷⁾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韓國典籍종합조사목록」의 선교장편을 보면, 1756년까지 嘉南 鏡湖로 나오나 1762년부터 현 위치인 丁洞 助山里로 나타난다.⁴⁸⁾ 원인을 해석컨대 당시 경포대 부근은 골짜기와 호수로서 넓은 들이 형성될 수 없는 지형이므로,⁴⁹⁾(그림 11) 농지 확장과 더불어 그 중심으로 가까이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⁰⁾

논물 공급용 우물파기에 동원되었었다. 이 부근 마른 개천의 모래를 깊이 파니 웅덩이에 많은 양의 물이 고였었다.

44) 이중환(1690년 출생)의 앞책에 “경포호수는 주위가 20리이며, 물깊이는 사람의 배꼽에 닿을 정도여서 작은 배는 다닐 수 있다.”(240쪽)고 하여 이미 20리로 줄어들고 호수의 소택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시루봉 동쪽 낙맥에 있는 경포대 정자 뒤의 마을. 이 골에 모시가 많이 나서 생긴 이름. 김기철, 「강릉지역 지명 유래」(인애사, 1992) 120쪽

46) 안동 권씨를 이 지역에서 죽헌 권씨로 부른다.

47) 이기서 「강릉선교장」 49-50쪽

48)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3집, 1989. 235-36쪽. 김봉렬, 「건축역사연구」 14집(1998) 33쪽 주6에서 조사했음.

49) 영조때 金尙星이 (1703-1755) 그린 「關東十一景」 그림에서 경포대는 호수에 반도로 나온 동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논인 골짜기 당시는 전부 호수였음을 알 수 있다. 방동인, 「영동지방역사기행」, (신구문화, 1995).

50) 당시 한 해의 추수기를 보면 선교지역에 집중된 농토는 압도적으로 논이 밭보다 많다. 총 35결98부2속중 논이 92%. 서병패, “조선후기 강릉지방의 사족 지배질서와 경제문제”, (상명대 박사논문, 1996.) 74-75쪽. 또 선교장이 있

41) 이중환, 「택리지」 이익성역 (을유문고 1992) 252쪽 (원문 353쪽) (惟溪居有平穰之美, 瀟灑之致, 又有灌溉耕耘之利, 故曰海居不如江居, 江居不如溪居, 凡溪居必以離嶺不遠, 然後平時亂世, 皆宜久居, ... 實爲士大夫可居之處).

42) 이수건, 앞책 152-53쪽

43) 5.16 직후 1962년 전국적 가뭄 피해가 심할 때 필자는



그림 11. 18세기 초 경포대와 호수 그림 (金尙星)

한편 건축가는 물체 집에 치중하지만 경제학이나 역사학에서는 양반주거를 農莊의 일부로 보고 집인 主家와 奴家와 田畓의 복합체로 본다.⁵¹⁾ 활래정을 포함한 선교장 主家は 앞의 30여호에 해당하는 호지집 (아마 초기 신분적 노비로서 지주 자영 농사에 참가하였을 것이나 이조후기 비신분적 경제적 소작(병작並作)으로 바뀌었을 것이다).⁵²⁾ 과 분리되어서는 이해될 수 없다. 집안인 이기서 교수도 현재 없어진 초가집과 함께 해야만 선교장이 의미있음을 말한다.

“초가집들이 중요하다. 선교장은 초가집과 더불어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릉시에 항의했다.”

마찬가지로 선교장의 앞과 옆에 있는 대가족을 나타내는 친척집들(4촌, 6촌집)과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소실집은 물론 곡식을 저장하는 큰 창고도 “집”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리적 영역을 보면 선교장 영역은 ㄷ자로 감싸여진 산줄기가 영역의 끝이 되고 산자락 끝에 주가가 놓여있고 그 입구에 활래정이 있다.(그림 12. 배치)

앞 절 행랑채에 해당하는 가람집들과 활래정

는 北坪村은 ‘뒷바대’ ‘뒷뜨르’라 하여 죽헌 일대를 일컫는데 ‘강릉 북쪽에 있는 넓은 들’이란 뜻인데, (김기철 『강릉 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2, 125쪽) 호수의 상류가 된다. 51)김건태, “16-18세기 양반지주층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동향”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6. 3쪽

52) 김건태 앞책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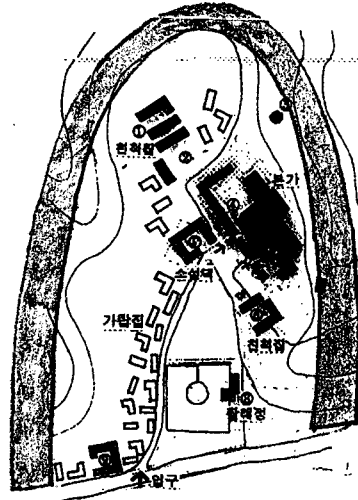


그림 12. 선교장의 배치와 영역 (김태식, 석사논문 도면을 바탕으로 재작성)

을 포함한 건물들은 마을이 아니라 선교장 집안 영역에 해당하며 실제 그렇게 사용했다. 앞 절 2-3에서 정인국 교수가 현 대표소가 있는 곳을 동네 입구로 보아 “활래정이 선교장 洞口에 [즉 집밖] 있다”는 문체의 표현은 집을 본체에 한정했기 때문에 나온 좁은 해석이며, 동구를 집의 입구로 보아 “家口에 있다”로 대체 수정한다면 활래정은 집 영역 안에 있게 된다. 더구나 현재 2차선의 넓은 통과 차도는 30년전만해도 오솔길에 불과하여 외부인이 쉽게 통과하지 않는 폐쇄적 영역이었다. “찢차 정도 다닐 수 있던 농로를 넓은 자동차 도로로 만든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이기서 교수는 말한다. 안주인 성할머니 면담에 의하면 “이내벗은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오라고, 입구에 담도 없었다(성).”고 집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한편 집은 단지 본채 앞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진출하여 “열화당의 뒷정원, 안채의 뒷산 그리고 활래정의 뒤까지 연결된 동산 자체가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었다.”⁵³⁾ 소나무로 우거진 뒷산중 사랑채 열화당 뒤편에 남성공간 팔각정이 있었고 안채 뒷산에는 단오때 큰 나무에서 그네뛰기도 하였다. 뒷동산은 집 선교장과 분리

53) 이기서, “발문”, 82쪽.

할 수 없는 마당의 연장이다. 선교장 집의 莊에 園을 붙일 때 뒷동산을 포함한 ‘自然’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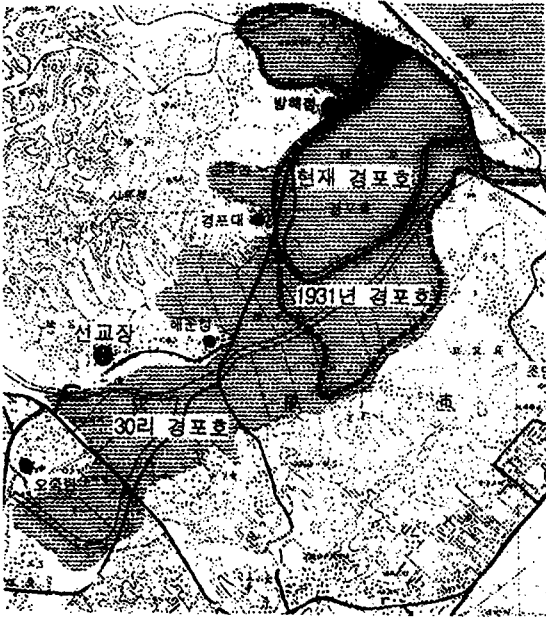


그림 13. 선교장 앞 호수의 쇠퇴

또한 연못감상용 활래정은 확장되어 경포호와 동해바다로 이어진다. “경포호와 동해를 그대의 집의 문과 정원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라.”하는 趙寅永의 活來亭記의 문장이⁵⁵⁾ 이 집의 범위와 자연으로의 확산을 잘 말해 주고 있다. “蘇東坡의 赤壁과 周敦頤의 濂溪를 노래하고”⁵⁶⁾ 또한 “그러한즉 마음에 맞는 곳은 진정 멀리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연못 한 자 깊이 물도 또한 호수와 바다인 것이다.”⁵⁷⁾ 귀절은 집-연못-호수-바다의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유자재로 확산, 수축하는 생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완산세고”와 20세기 초반 사진을 보면 관동 팔경의 명승지 경포대를 찾아오는 수많은 명사, 문객, 관료들이 선교장을 방문하게 된다. 선

교장 대주는 이들과 교류하여 친분을 갖게 된다. 유교질서의 설계원리중 중요한 ‘接賓客’ 활동은 경포호수와 집을 분리할수 없는 일체로 파악하게 한다.



그림 14. 방해정 바로 앞 호수에서의 가족사진 (1943년. 현재와는 다르게 물에 들출한 홍장암이 보임)

한편 방해정 정자가 5대 이의범에 의해 1859년 2km 정도 동쪽 호반에 건립된다. 호수에 배 띄우고 풍류를 즐기기위한 정자인데 손님도 접대하고 가족도 사용하였다. 성할머니 면담에 의하면 집에서 가마타고 갔는데, 남자들만이 아닌 여자가 머무는 안채 별장도 따로 있었다고 한다. 가족 사진집의 선교장 배경 사진 총 32매 중 무려 13장이 방해정과 그 앞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그림14). 별장 건립이유를 호수의 쇠퇴와 더불어 해석하면⁵⁸⁾ 호수를 기반으로 한 초기 선교장 앞이 물으로 변하여 호수 감상과 뱃놀이를 할 수 없게되자⁵⁹⁾ 하류로 내려가서 직접 호수 물가에 닿은 정자를 짓게 되

58) 호수는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노년기를 거쳐 늪과 소택으로 변화한다. 낮은 곳의 갈대, 줄 부들의 식물이 점차 퍼져나간다. 동서문화, 「한국세계문화대사전」 30권 ‘湖沼’, 17740쪽. 경포호수는 노년기로 볼 수 있다.

59) 호수가 줄어드는 자연현상은 어디에나 나타난다.
①선교장의 불과 600m 동쪽에 있는 해운정이 심언광(1487-?) 시대만 해도 집앞에서 직접 배를 띄웠다고 한다.
②면담: 1940년대 후반 “앞들 최초의 개천 넘어서 ‘황천고래’라 했던 뿔이다 [실제 지도상 ‘고래들’로 표기됨]. 국민학교 다닐때만 해도 나뎠땅이었고 농사는 안되었.”(서).
③또 성할머니는 “내가 여기 시집오던 40년 전에는 여기 열두밭의 물이 호수로 들어 이곳은 모두 늪지대였지요. 내키보다 더 크게 자란 부들 숲 사이에 늪속 오솔길을 헤치며 얼마를 가야 했는지” 호수의 소택화를 말한다. “선교장을 지켜온 안방마음을 찾아서”에서. 출처 미상의 면담 기행자료. 선교장 보관.

54) 이기서, 앞책 57쪽, 선교장을 “四季의 莊園”이라 칭함은 자연으로 열림을 말한다.
55) 이기서, “완산세고” 105쪽.
56) 이기서 “완산세고”, 115쪽
57) 이기서, “활래정기” 105쪽

었다고 추정한다(그림13).

선교장의 자연은 한 단계 더 나아가 神仙으로 올라간다. 조인영의 “仙橋莊”이라는 말, “강에 갈매기 홀로 서서 밝은 달 아래 시름하고 仙鶴은 외로이 울며 白玉京으로 올라가네”라는 “이승지 돌아가신데 대한 시”와 “날렵한 누각 바로 옆에 신선의 배가 머무니, 이곳이 인간 세상의 광한교가 아닌가,”⁶⁰⁾ “경포호 삼십리가 三神山 찾으러 온 사신과 정말 통했구나.”⁶¹⁾ 동 등의 오은공의⁶²⁾ 詩는 신선을 지향하고 있다. 또 山石公 이용구의 “방해정 상량문”에도 신선 사상이 기초가 된다.⁶³⁾

나같은 자는 줄과 부들이 [경포 호수의 풀] 자라는 먼곳에 차취를 두었고, 가족나무 상수리나무 처럼 쓸모없는 재목으로 「道德經」 五千言을 받아 老子를 가까이 하였으며 「皇極經世書」 만팔백策을 서술하여 스스로 堯夫에게 바쳤다. 행장을 차려 일찍이 武夷山에서 즐겼으며 거문고와 서적, 공명을 남몰래 비웃었다. 대저 仙橋에 올라 사마에 술을 짓고 하인으로 하여금 가래를 메고 따르게 하면서 [죽으면 즉시 묻으라고] 세상을 물거품이라 치부하고 돌로 양치질하고 샘을 베고누워 평생 산을 떠다니는 것을 즐겼다. . (124쪽)

蓬萊山을 끌어당겨 仙室을 굽어보니 어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자연스럽게 화려한 수식을 제거하니 황홀하기가 마치 원만의 象을 드러내는 듯 하였다. (125쪽)

오색 노을 속의 三神山이 자라 머리를 밟고 섭렵하고 있으며 만리 김 바람에 봉새 등을 타고 소요하노라. (125쪽)

마찬가지로 집을 단일 물체로서만이 아니라 ‘집-자연-신선세계의 연쇄 사고 구조’로 볼 때 선교장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선교장 건축물 집은 대문간 안의 본채와 밖의 활래정으로 독립된 개체로 파악되어서는 안되고 집-토지, 집-奴家, 집-뒷동산, 집-호수, 집-방해정 모두가 결합된 하나의 연결된 총체적 개념의 집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60) “이사또와 경포호에서 뱃놀이 하며.” 117쪽.
 61) “해운정에서 중국 사신 공씨 운을 차운하여.”
 62) 鰲隱이라는 호는 (일명 鰲山) 동해 바다의 자라등에 얹혀있는 三神山으로서 神仙思想을 말해주고 있다.
 63) 이기서, 「강릉선교장」 “완산세고” 124쪽.

이 내용을 陰陽思考를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에 변형시킨 필자의 ‘안팎構造’ 이론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⁶⁴⁾(그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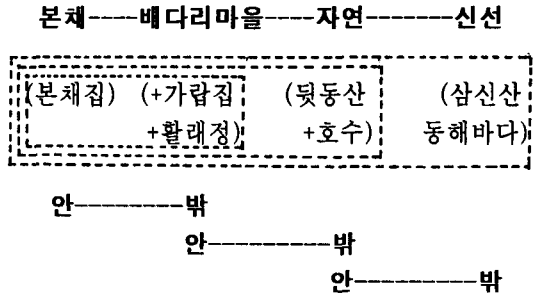


그림 15. 선교장의 안팎구조

배다리 마을은 선교장 본채에 대해서 밖이지만 둘러싼 자연에 대해서는 안인, 즉 안이면서 동시에 밖이 되는 對待的 연쇄구조를 형성하여, ‘안의 안의 안’과 동시에 ‘밖의 밖의 밖’의 공간의 겹을 형성하여 인간세계와 벗어나 신선세계로 초월해 올라간다.

한편 안팎구조를 적용하면 정인국교수가 제기한 의문, 즉 ‘흔한 예가 아닌, 출입 대문에서부터 내외체가 완전히 구획된 남 녀 두 개의 대문’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된다. 안팎구조 사고에 의해 대문 밖이 되는 마을 영역이 밖이 아니라 집의 안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본다. 집의 입구적인 동구의 ‘대문없는 대문’으로 들어와서 한참 진입한 후 ‘중문적인’ 문체의 내외체 분리된 출입대문에 다다르게 된다. “담도 없었고 사랑문 대문을 늘 열어놓고 살았다(성)”는 면담내용과 “여름에는 활래정에서 문을 활짝 열고 살아, 앉아 있는 것이 다 보였다.(성)” 그러면, 마을로 향해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마을을 집의 내부영역으로 볼 때 해결될 것이다.

4-2. 유교질서 속에서의 집: 상/하 위계, 남/녀 유별

이조 사회는 유교 질서체제에 근거를 두고

64) 이희봉, “한국건축에 기호학적 구조의 적용에 관한 연구” 1978 서울대 석사논문. 및 “안팎구조-한국건축공간의 구조주의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2집(1992.12)

있는바 집은 그에 따라 형성됨은 당연하다. 유교의 일반적인 원리가 이 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교적 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속되는 것이 목표로서 과거의 죽은 조상과 함께 거주하면서 숭배하고 미래의 계승을 위해 적장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활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남녀가 구별되며 장유의 순서에 따라 위계가 분명하다.

이 집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은 남성공간인 사랑채 열화당 건물이다. 열화당은 서서 눈 높이가 되는 꽤 높은 건물로서 대주가 기거하였고 “가기 어려운 공간”이고 이기서 교수는 “큰아버님 뵈 때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곳”으로 기억한다. 그 앞마당도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어려운” 공간이었다.

건물 세부를 통해서 상/하와 안/밖의 위계를 살펴보면, 우선 바닥 높이가 꽤 높다. 차양 구조 안을 일차 통과하여 계단을 7단이나 올라가서 사랑 대청이 나온다. 손님 접대하는 대청 마루에서 안인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은 3개나 있다. 사랑방은 안과 밖으로 나누어져 있고 더 속방이 있다. 사랑방(아래)에서 세배를 했고 더 깊은 속 뒷방은 평소에 거의 닫혀있다고 이기서 교수가 기억한다.

물적 높이에 따른 위계를 보면, 손님중 급이 높은 분만 올라갈 수 있었다. 하인도 마찬가지로 “일제 말기까지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인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서)(그림 16). 돌계단 4단 올라가서 다시 나무계단 3단이 나오게끔 중간 단계를 두었고, 올라가서도 대청의 밖에 해당하는 뒷마루가 먼저 나온다. 점차 위의 위의 위로 올라가는 연쇄 상하 구조와, 안의 안의 안으로 향해가는 연쇄 안팎 구조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이한 점 하나는 대청마루가 두 개 있다는 것이다. 대청마루에서 앞 방을 거쳐 가장 속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개방된 공간인 작은대청으로 나와 누마루에 이른다. 일정부도면에 보면 작은 대청 두칸 사이가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림 16. 열화당 위계를 보이는 사진. 1904년. 대주와 사냥 친구분들과 하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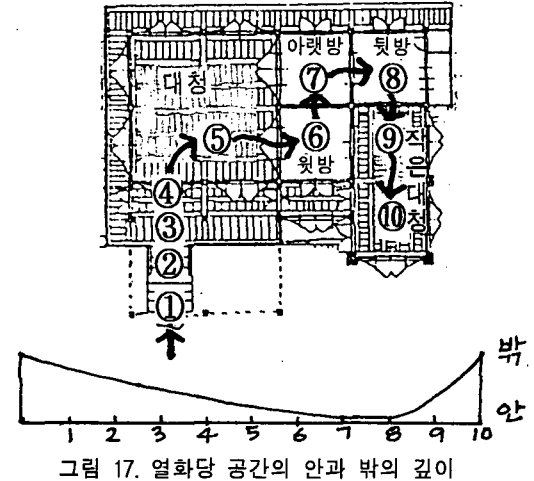


그림 17. 열화당 공간의 안과 밖의 깊이

안쪽을 樓 바깥쪽을 軒으로 쓰고 있다.⁶⁵⁾ 속방(뒷방)에서 밖인 작은 대청마루도 다시 안과 밖으로 쪼개질 수 있는 구분을 갖는다. 열화당은 공간 깊이상 얕은데서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는 교묘한 공간 장치이다. 단일 깊이가 아닌 2중적 성격을 ‘큰대청+사랑방’과 ‘작은대청+뒷방’으로 두 공간을 분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화당 건립 취지인 “형제들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추정을 할 수 있다.(그림17)

높이와 관련하여 반가 대부분 그러하듯 산쪽으로 지형이 높아지는 곳을 안으로 하여 중요 건물을 놓는다. 지금 선교장의 서측에 일정부 동진학교, 곡식창고도 있었지만, 사다다리로 올라가는 2층집이 있어서 이기서교수가 어렸을

65)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三 江陵郡』, 調査資料 第32輯, “제4도 평면도, 운정리 이근우씨택” 1931

때(1940년대초) 한동안 거주한 적이 있는데 “선교장 전체가 내려다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셨다”는 면담은 물적 높이가 심적 위계와 역전될 때의 불편함을 볼 수 있다.

활래정도 아무나 갈 수 없는 어려운 공간이기는 마찬가지다. 이기서 교수도 성장해서야 겨우 사용권을 받은, “대학 지나서 군 끝나고 오니 큰어머니께서 열어 주고 쓰라고 열쇠를 주신”(서) ‘높은 공간’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집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家統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다. 대주-장남-장손은 배치평면상 열화당-중사랑-아랫사랑의 삼각형으로, 또 여성은 시할머니-시어머니-며느리는 안방-건넌방-동별당의 삼각형으로 자리잡아 서로 본받아 배우게 배치했다고 한다.(그림4 참조) 또한, 대주가 동별당 안방에 안식구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거나, 새며느리 교육을 시키거나 하였다. 갓 시집은 며느리에게 산방에서 시어머니가 궁체로 글씨 연습하도록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 선조의 정신,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사랑문 열어 놓고 ‘개방된 삶’을 살았던 것이나 형제, 친척간의 우애를 위해 형제끼리 함께 심지어 소실까지도 같은 영역에서 살게 ‘가족 화목’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 선조들의 글에서 보이는 검소하게 살라는 정신이 자손들에게 이어진다.

한편, 남녀유별의 문제에 앞 2-3절에서, 이 집은 왜 여성 대문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었을까하는 기본 의문을 풀어보자. 경상도 양반집들에서처럼 남성공간 뒤에 폐쇄된 상태로 있어 야할 여성공간이 전면으로 노출되게 되었을까하는 점이다. 이러한 여성개방 성향의 배치에 대한 답의 하나는 앞절에서 본바와 같이, 동구가 대문아닌 대문이 되어, 외부인이 바로 안대문을 통과, 여성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안의 공간이 된 마을이라는 준사적 공간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

또 하나의 측면은 여성의 개방적 또는 독립적 성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안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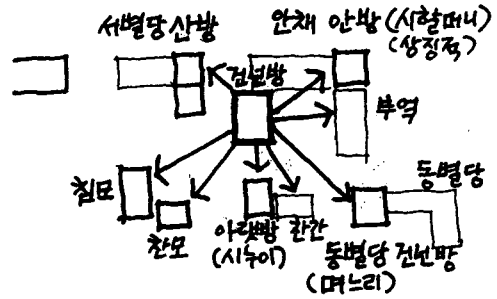


그림 18. 시어머니의 통제권 평면도

성할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① “대주가 서울의 관직에 있고 안주인이 직접 선교장을 관리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성)[기계 유씨의 여결과 같은 활약으로 동학군의 침입을 무사히 넘김은 집안 전설처럼 되어 있다.]

② “선교장 안주인은 남존여비만은 아니었다. 아무리 대주라고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주인이 따졌다. 대주 경농이 안주인 청풍 김씨에게 잘못 하면 대들어, ‘되로 주고 말로 받는군’ [시할머니 기계 유씨] 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안대문을 따로 둔 것은 생활의 편리 위주로 여자를 존중하고 가두지 않았다.”

④ “시할머니가 안채에서 내다보는데 막힌 것이 갑갑하여 폐쇄적 안마당을 형성하는 찬간을 헐어버렸다.”⁶⁶⁾

나아가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으로 대표되는 강릉 전통의 비교적 지식인 여성상과, 이 집의 며느리는 전부 서울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 개방성향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남성 체보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 “당시는 며느리가 부뚜막에서 밥먹는 것이 미덕이었다(웅)”고 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절대 위엄의 전통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개방성은 있기 힘든 얘기라고 한다. 선교장은 남성중심의 엄격한 유교질서 속에서 제한된 여성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배치평면을 보면 시어머니의 거처인 건넌방(越房)이 중심에 있다. 위계가 가장 높은 시할

66) 또하나의 이유로는 선교장 안주인들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 왔다는 점과 강릉의 여성 신사임당, 허난설헌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머니의 대방(안방)은 오히려 제일 끝에 쏠려 있다. 안방에서 죽어야 방물림이 가능한 臥席 終身 풍습에 따라 상징적 배려만하고, 실질 권한을 가진 시어머니가 안채는 물론 동별당과 서별당의 식구와 하인들을 통제하기 쉽도록 배치 중심에 위치했다고 해석한다.⁶⁷⁾(그림18)

개방성향이라고 하지만 안대문을 들어가면 안채까지 여러 단계의 공간의 겹, 즉 안대문 문간채-문간마당-동별당-안마당-안대청으로 이어지는 겹을 거쳐야 한다. 안대문을 들어가면 문간마당에서 안채를 거의 가리는 찬간이 가로막혀 있다. 찬간은 시할머니 기계유씨(1849-1931)가 철거했다고 하는데, 1931년 조선총독부 사진에 보면 그 자리에는 장독들이 있고 벽돌담이 높이 쳐져서 안대문과 시선차단은 여전히 하고 있었다.(그림7)

유교원리에 따라 남녀를 구분함은 기본 규칙이었다. 「선교장 가족사진집」 1920년 당시 종부 기계유씨 전신 독사진 설명에 “사진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안채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여 소실택인 앞집에 나가서서 촬영”(14쪽)이라 된 것을 보면, 엄격한 남녀분리를 볼수 있다. 남녀 차단의 물적 장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대문을 들어가면,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꽤 높은 담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담의 연결문은 지금은 두 쪽 큰 이지만 원래 처마 밑 쪽문이었는데 성할머니가 “상을 들고 다니는데 답답하여 제대로 크게 늘린” 것이다.(성)
- ②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서별당과 그 아래채의 마당 공간을 두어 남성, 여성 영역이 중간에서 완화되도록 하였다.
- ③서별당에서 서고와 여타 방 사이에 내외담을 두어 사랑마당과 서별당 마당을 쪽문으로 소통했다.
- ④안채와 안대문간 사이에 찬간(30년대 이전, 80년대 이후), 또는 담(30년대-50년대), 또 안마당에 무성한 관목으로 외부인의 시선차단(70년대 이후)을 했다.
- ⑤활래정이 개방된 위치에 있으므로 “안채에서 안보이게 사이에 개나리 밭을 내외담처럼 두었다.”(성)
- ⑥ “활래정 옆을 지나갈 때 보일까봐 낮은 사철나무 울타리 옆을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걸어갔다.”(성)

한편 안채는 엄격히 폐쇄되지는 않고, ①여

성이 바깥으로 직접 나올 수 있고 (우물인 안대문 바로밖에 있었음), ②안채의 바깥부분인 동별당에 친정 식구나 가족 당내 식구가 머무를 수 있었고, ③안채 안방에 아들이 문안, 상의할 일 있을 때, 어머님이 부를 때 자식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④힘을 써야 하는 작업[쌀과 밥을 나르는데]에 남자 하인이 출입해야 했다.

대주는 비교적 자유롭게 안채 출입이 가능했다. ① 동별당 안방에서 가족 전체나 안식구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② “시아버지는 시할머니와 안방에서 겸상해서 식사했다.”

한편 여자를 포함한 집안 가족 사진을 찍는 장소가 주로 사랑마당내(대문간 부근)가(4장) 되는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성공간으로 들어가 기 보다 여자가 남성공간으로 나옴을 알수 있다. 동별당은 시아버지를 비롯 가까운 당내 친척들이 올 수 있으므로 남녀 구분에 우선하여 안채에서 비교적 개방된 공간이었다. 이기서네가 일제 말기 대동아전쟁시 서울서 소개 내려와 잠시 동별당에 거주했다는 것으로 보아 상황의 편의성이 유교의 남녀구분보다 우선함을 알수 있다. 남녀의 차단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두가지 상반되는 요소는 공간 구분상 어느정도 융통성을 준다.

무엇보다 남녀 차단 구조 속에서 자손 생산을 위해 만남이 필요하다.

“시아버지께서 날을 택해 남편을 월방에 들라하여 잠을 같이 잘 수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아버지께서 온 사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그날 저녁에는 아무도 그 방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원래는 각 방마다 종이 다 달려 있어서 함께 잠을 자지만, 그날만은 다른 방에 가서 잤다.”(성)

전통주거에서 남녀를 차단하는 물적 장치는 실생활에서 ‘눈치’를 통하여 서로 소통한다. 눈치는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 문법 중 하나로써⁶⁸⁾ 상/하 또는 남/녀의 이원 대립에서부터 변증법적 조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다. 머느리로서 손님이 오면 알아서 상을 내야 한다.

67) 김태식, “선교장 가족성원의 역할을 통해본 전통주거공간의 제조명”(중앙대 석사논문, 1997) 91-92쪽 참조.

68) 강신표, 「한국 문화 연구」, 38쪽.

사랑에서 몇사람이 왔으니 어떤 상을 보아 오라는 지시는 없다. 따라서 “찬간을 통해서 어떤 손님이 왔는지를 다 내다보고” 알아서 장만해야 한다. 또 “안채에서 활래정에 앉아 있는 것을 다 보고” 어른 거리는 그림자를 헤아려 손님 접대상의 격과 수량을 준비했다. 또 침모가 서별당 아랫채에서 사랑마당을 내다보며 손님 몸 치수를 재고 하는 것이 전부 ‘눈치’로서 안주인이 해야 할 일이다. 정해진 기약없는 손님 접대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객 중 차장 박기정, 김진우 같은 분들은 한차례씩 와서 몇 달이고 머물렀다. 옷도 지어 드리고 여비까지 주었다. 그러면 글을 지어 남겼다. 진짓상, 아침상, 주안상, 밤참까지 차려 올렸다. 언제 떠나는지 통 알 수 없다. 상노가 시중 들었었는데 ‘떡 같았니?’ 하고 물어 본다. ‘아직 안 같았어요’ 한다. 떡 같았다면 내일 떠난다는 신호다. 가기전에 글을 남겨주고 가려고. 그때 문인들 호기가 당당해서 머느리 훔볼까봐 대접 잘해야 했다.”(성)

전통가옥은 여성의 ‘눈치’에의해 남녀차단의 물적 벽을 뚫고 남성 행동을 파악하도록 구조되어 있었다.

4-3. 집의 성격

이 집이 건축계에서 관심을 끈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독특한 배치이다.⁶⁹⁾ 이 집의 특성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는 정인국 교수의⁷⁰⁾ “분산하여 개방된 배치”로서 “평면형은 민간형을 따르고” 있다는 말을 검토해보자.

선교장은 경상도 전라도의 전형적으로 알려진 양반주거의 유형과는 아주 다르다. 폐쇄되지 않은 안마당 공간과 외부에 드러나는 동별당과 안채-사랑채 사이에 놓여있는 서별당 등등은 비전형적 배치를 이루며, 비원의 부용정과 닮은 입구 별도의 활래정 정자가 현대의 취향에 맞는 자유로운 배치처럼 보인다.

사실 찬찬히 뜯어보면 사랑채 열화당은 사찰 대웅전처럼, 중사랑 아랫사랑이 마치 회랑처럼 마당 주위를 감싸고 있는 기본형태이고, 서별당 역시 폐쇄된 안마당을 가지며, 안채도 원래는 폐쇄형이었으나 동별당을 증축하면서 옆구리가 터진 배열이라서, 개개는 별다르지 않으나, 그 서로 ‘엮음’이 확연히 다르게 보이게 하고 있다. 그 원인은 김봉렬 교수가 논문에서 잘 지적한 바대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대에 걸쳐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 성장해 나갔기 때문이다.

건축학에서는 시각 형태의 유형학에 주로 관심을 쏟아왔다.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차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집의 실체를 설명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유형학의 한계이다. 양반형/민가형, 정형/자유형은 머릿속에 경상도 전라도의 입자형의 폐쇄된 안마당을 갖는 안채에 바깥쪽으로 별도의 사랑채가 있는 배치를 기본으로 미리 전제한 얘기가 된다. 중국의 사합원은 하나의 공식이 되어 좌우 대칭의 엄격한 공간이 되지만, 우리의 특성상 자유로움이 이미 전제되어있다. 기존 논문에서 이 조 양반 주거를 朱子家禮를 통해 집의 형태를 설명하기도 하고, 풍수 또는 양택론으로, 또 집주인 유학자의 성리학의 주리파와 주기파의 계열에 따라 폐쇄적 정형 또는 반개방형 자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생활이 담겨있는 집을 원리 내지는 ‘공식’에다 집어넣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집은 면담시 자주 나오는 “생활에 편리하게” 라는 말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이 집 거주자의 설계원리를 정확히 나타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설명은 이 집이 주로 19세기에 이루어진다는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20세기 초반까지 완성됨) 시대적 근대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건축역사학계가 경제역사학계의 성과를 조금이나마 참조한다면 사대부 양반주거는 경제구조상의 농장의 한 부분이 되어 농업경영의 효율성으로 편입되게 된다.⁷¹⁾ 흔히 건축학

69) 99년 KBS 전통양반주거 기획물에서 전국의 가장 좋은 주거 10선에서 건축가, 학자들이 임의 선정한 결과 1위로 선정되었다.

70)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391, 401쪽

에서 반가와 민가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의가 있지만 더 들어가보면 구분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양반주거는 지주제 농업경영의 기반상 부농주거의 성격이 섞여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궁궐형 또는 양반형에 대비되는 '민간형'이란 정인국 교수의 용어도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우선 정인국 교수가 창안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경기형/민가형의 구분⁷²⁾, 즉 안방과 부엌이 대청과 직각으로 놓이는가 일자로 채의 끝에 놓이는가의 문제는 단일채 중심의 민가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여러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는 반가 배치에서 그 의미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강원도 경상북도 태백산맥대 민가의 곁집형 방구성을 했다고 해서 민가형이라 이름짓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물론 사랑채 열화당과 안채와 동별당이 방뒤에 방이 더불어 있으나, 부자집의 기능 확장 욕구에 의해 뒷방(또는 골방) 내지는 도장방(창고)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지.⁷³⁾ 충청도의 추사고택에 가도 골방이 있고 전라도의 녹우당에 가도 골방이 따라붙는다. 용도는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사활을 위해 앞방에서 퇴출해 옷갈아 입거나 낮잠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 할 때, 충청도 전라도에 태백산맥 곁집이 진출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는 건축학에서 병폐인 '유형에의 지나친 집착'의 결과로 보인다.

학술논문발표시 강혁교수의 토론내용, 중심부에서 벗어난 주변부 변방형이라서 그렇지 않은가하는 질문을 검토해본다. 중심부/주변부는 세계 식민자본주의 종속이론으로 80년대 한국 지식계의 의식화 기본이론이었다. 양반주거

연구에서 주위로 퍼져나간 막강한 중심이 과연 있었을까하는 의문이고 또 불교 문명의 전파에서 알 수 있듯 언제나 원형이 전파되어 지역형으로 습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바 중심을 전제로한 주변형은 타당성이 없다.

다음으로 이 집의 성격상 기존연구에서 논란이 되는 호화/검소의 측면을 규명해보자. 정인국 교수의 "토호적인 성격이 강하고 유생적인 성격은 약하며 극히 평민적 생활의 표현이 엿보인다."는 분석과 김봉렬교수의 "서양 장원제도의 비유" "대장원 건설이 목표" "사회경제의 복합체" "당나라 이덕유의 평천장의 끌어옴" 등과 같이 선교장을 상당히 호화스러운 주거로 파악함은 서로 대립된다.

다른 양반주거와 비교해볼 때 건물의 규모는 민간 99칸 이하 규제를 벗어나지 않아 같을 것이므로 화려함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위엄스런 사랑채 열화당과 연못의 활래정 정자일 것이다. 열화당 앞의 채양은 서향 해가림의 실질용도이고 러시아 공사의 선물이라 전한다. 열화당은 규모보다 높이의 문제라 여겨지는 바 이 정도의 높이는 논산 윤증고택에서와 같이 흔히 볼 수 있고 오히려 상주 대산루 사랑채보다는 낮다. 양반집에서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설치함은 흔히 있는 건축요소이다. 달성 박병규가 하엽정 연못, 연못은 윤증고택, 정자는 독락당 계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열화당은 당시에 드문 7천석 지기 대부호였으나 건축적 호사를 보면 보통 양반집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중국 蘇州에 발달한 집의 정원 (예, 拙政園, 留園) 이나 구미 영주 귀족들의 화려한 성채와 정원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또 소슬대문의 높이를 보아도 지붕에서 두자 높이도 안되게 올라간 아주 낮은 대문으로서 양반집으로는 '비과시형'이라 할수 있다.

이조 선비들의 유교에 바탕을 둔 검약 정신과 도교의 신선사상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해석된다. "오은공 유교"의 "새 연못에 꽃을 심고" (新塘種花聯句序) 에서 당나라 평천장 이야기를 "平泉之戒"라 하여, "화려했던 평천장을

71) 최근 저자 지도 석사 논문, 이항미, "유교사상과 실질 생산 측면의 전통주거 녹우당 연구" 1999.12 중앙대 실내 건축과 참조.

72) 조성기 교수는 같은 이름을 경기형/영남형으로 새로이 작명한다.

73) 주남철교수는 "안채는 앞뒤로 방을 두고 그 옆에 대청, 그리고 건넌방을 두어 어떤면에서는 곁집구조의 평면을 보여준다."와 같이 ("한국주택건축" 144쪽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강조 필자)

당대에도 부지못했던 사실을 말하면서 자손까지 이 장원을 물려주려는 생각의 부절없음"을 가르치는 구절과 앞절 "산석공 유고"의 "방해정 상량문"에서 노자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극히 낮추면서 "화려한 修飾을 제거하니 황홀하기 마치 원만의 상을 드러내는 듯하다."라던가 "경농공 유고"의 "활래정 중수기"에서, "집안사람과 약속하기를 과도함을 버리고 지나침을 삼가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마련하여 옛 초가집을 고쳐올리기로 하였으나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공사가 끝났다. . . 나의 검소한 덕은 비록 선조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몸소 그 노고를 겪어 부지런히 힘써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되었으니 여기에 또다시 덧붙이지만 않는다면 거의 욕되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74) 라고 검약정신이 선조로부터 후대까지 면면히 건축계획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근대의 개화성이다. 1908년 경농 이근우에 의해 신식 교육기관의 효시인 東進學校가 본채 서쪽에 설립 개교되어 몽양 여운형등이 가르치나 일제 탄압에 의해 폐교되었다.75) 열화당 차양을 비롯, 서구 문물을 도입한다. 1931년 도면에 보면, 욕실, 다실, 실내변소가 도처에 있고 열화당 대청은 웅장스럽고 씩어있다. 제사도 "경농의 명에 의해 일찍이 다른 종가집과는 달리 1년에 한번 통합해 지내고 하고 인근 오죽헌(안동권씨)을 비롯한 다른 종가에서도 본받아 따른다"고 한다(성). 어느 유교를 바탕으로 한 사대부 종가집과는 달리 새로운 문물을 자유롭게 받아들인 것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이 집의 근대적 특성중 하나일 것이다.

4-4. 전통주거의 복원과 관광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 가는 현재에 과거의 중요한 문화재는 보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주 구조가 목조로 되어있는 전통주거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 상태 그대로 관광객에게 보여져야 할 것이다. 어느 때엔가 없어진 건물들을 복원하여 온전한 전체를 현재에 전시하려함은 당연하나 신중을 요한다.

선교장에서 70년대 이후 복원 내지는 변경된 사항을 보면, 서별당의 복원, 중사랑의 복원, 아랫사랑(행랑)의 양쪽 날개 복원, 새대문의 폐쇄



그림 19. 가족사진에 나타난 사랑채-안채 담장 중문 (1935년)



그림 20. 변경된 현재의 사랑채-안채 담장 중문

와 전면으로 윽김, 찬간의 복원 등이다. (그림 19, 20) 여기서 학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주거란 언제나 변해가는데 어느 시점을 잡아서 어떤 철학하에 복원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건물들을 보면, 서쪽의 동진학교 건물, 이층 주거, 곡식 창고와 전면의 소실대, 동쪽의 육촌집, 그리고 24여호의 초가 가람집들 등이다. 전통 형태는 아닐지라도 굳어진 러시아 공사가 선물했

74) 이기서 앞책 「강릉선교장」 130-31쪽

75) 이기서 앞책 81쪽 및 이현의 편, 「선교장가족사진집 1849-1955」, (열화당, 1995. 비매품) 21쪽에 태극기를 게양한 당시 동진학교 사진이 있음.

다는 20세기 초의 열화당의 채양 구조물은 차치하고서라도 일정때 (1930년대) 도면과 사진을 보면 열화당과 중사랑 사이에 욕실, 찻간, 화장실이 다리모양으로 이어서 걸려있고, 도처에 담장과 문들이 오늘과 다르게 나있다. 어떤 것을 무슨이유로 제외하고 채택하는지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별당 복원을 보면 고증과 설계 및 시공의 정밀성 부족으로 인하여 안채와 이어져 있어야할 뒷마루로 건너야할 건물이 뒤쪽에 짓는 바람에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다. 열화당과의 담장, 쪽문과 그 쪽의 계단이 망각된 채 정중앙 계단이 되었다. 중사랑은 어떤 연유로 두겹집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서별당 마당과 사랑마당을 연결하는 옆 대문(중문)을 폐쇄하고 전면으로 옮긴 것도 과거의(일정때는 물론 70년대까지도) 사용과는 다른, 거주자의 이전 설치 판단은 엄밀한 고증을 요한다. 또한 정확히 복원된다고 해도 현재의 시공 정밀도와 사라진 건축 장인의 정신이 문제다.(그림 21) 거처된 시공은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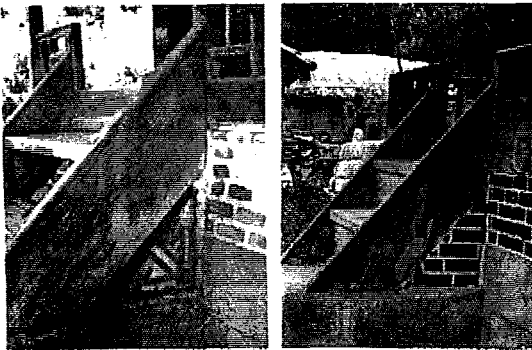


그림 21. 열화당 계단 보수 전후. 삼각 부분상세. (필자 촬영)

일단 이 논문에서 전통시기로 삼는 1940- 1950년 사이의 생활을 토대로 하여 건물을 복원한다면 오늘날 명실상부한 “전통주거”를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도 현재처럼 매표소에서 돈만 받고 보이는 대로 알아서 관람하라는 식이 아니라 해설을 통하여 관광객이 과거관으로 돌아가 당시의 생활과 주거와의 짝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

는 것이 참 관광일 것이다. 따라서 본채 건물만의 관광이 아닌 초가집들이 복원되어 농장 전체 체제 속에서의 선교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뒷산과 호수와 방해정을 연결하여 자연 속에서의 주거를 적극적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입구에 놓여있는 박대통령 시대 산물인, 선교장 형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란색 단청의 콘크리트 기와지붕의 민속자료전시관은 비용만 많이 소모된 실용성 없는 허세를 보여주어 이 집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그림22) 안주인이 “통곡할 노릇이라고 반대를 많이 했어도 20미터 안쪽에 민속기념관이 세워지며 넓은 찻길이 나는 통에 이 태고의 정적도 깨뜨리게 되다니.” 76)라고 한다. 철거하고(지붕이라도) 소박한 형태로 재설계되는 것이 전체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입구의 민속자료 전시관

선교장은 이씨가 개인소유라기 보다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건물의 보존과 아울러 교육적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학계에서 그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학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중요 전통주거 정책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5. 結語

오늘날의 주거형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 시간 속에서 해석한 선교장 주거 형태는 전통

76) “선교장을 지켜온 안방마님을 찾아서” 미상 선교장 보관 면담 기행기. 10쪽.

사회 질서를 담는, 여타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상류 주거와 마찬가지로의 일반성을 갖는다. 대주 중심의 장유유서의 위계를 나타내는 높임과 낮춤의 장치, 남성중심의 남녀유별의 차단장치와 소통의 장치, 개인이 아니라 영속성 시간개념으로 조상과 후손을 이어가는 가문의 유지를 위하여 대가족 친척들과의 화목을 목표로 집합거주등이 그것이다. 한편 선교장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다. 건축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토지와 노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집-토지-노가의 결합체로서의 상류주거의 특성과 주위 자연으로 열리면서 관광 명승지 경포호수를 배경으로 빈객을 맞이하여 자연 감상에서 신선으로 올라가는 주거이다. 또한 호수의 자연적 쇠퇴는 집의 구성에도 변화를 준다. 또한 집의 형태는 전형이나 규칙보다는 거주자의 생활의 편의 우선으로 세월의 축을 따라 형성된다. 일찍이 개화된 근대적 배치가 자유분방한 현대적 성격에도 맞아 들어간다. 선교장에서는 남성중심의 유교사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지 않은 주거를 볼수 있다.

이집의 당호 '悅話'와 '活來'와 '放海'가 집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랑채 열화당 건립정신은 친척 형제간의 화목으로서 유교 이념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닌 집단의 영속을 이루려는 목표이다. 활래정은 물을 통해 인간이 자연속으로 들어가는 동양적 상류 양반의 삶의 태도를 볼수 있고 시와 술로 교우관계를 넓히는 무대가 된다. 방해정은 자연에서 더 나아가 넓은 동해바다의 신선을 추구하는 사상을 표방한다.

참고문헌

Garbarino, Merwyn. *Sociocultural Theory in Anthropology*. Holt, Rinehart & Winston, 1977
 Heidegger, Martin. "Building, Dwelling & Thinking" *Basic Writings*, Harper & Row, 1977
 Rapoport, Amos. *History and Precedent in Environmental Design*, Plenum Press 1990.
 Spradley, James.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 Winston, 1979
 Tyler, Stephen. "Introduction to Cognitive Anthropology" in F.Gamst & E.Norbeck ed. *Ideas of*

Culture. Holt, Linehart, & Winston, 1976
 강신표, 「한국 문화 연구」, 현암사, 1985
 김건태, "16-18세기 양반지주층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동향"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6.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2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9
 김봉렬, "가족을 위한 장원의 영역- 선교장" 「이상건축」, 9710.
 ———, "전통주거의 계획개념 및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II-사례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7.
 ———, "전통주택 선교장의 건축이론과 계획개념연구" 「건축역사연구」, 14호. 1998.3
 김용옥, 「절차탁마대기만성」, 통나무, 1987
 김태식, "선교장 가족성원의 역할로 본 전통주거 공간의 재조명" 중앙대 석사 논문, 97.12
 동서문화, 「한국세계문화대사전」, 30권 '湖沼'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제3집, 1989.
 박순영, 「사회과학방법론과 해석학」 김동일의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청람, 1983
 방동인, 「영동지방역사기행」, 신구문화, 1995
 서병패, "조선후기 강릉지방의 사족 지배질서와 경제문제", 상명대 박사논문. 1996.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1990
 이기서, 「강릉 선교장」, 열화당, 1980 및 부록 "완산세교" 1996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1980
 이중환, (이익성역), 「택리지」, 을유문고, 1992
 이향미, "유교사상과 실질생산 측면의 전통주거 녹우당 연구" 1999.12 중앙대 석사논문
 이현의 편, 「선교장가족사진집 1849-1955」, 열화당, 1995. 비매품
 이희봉, "한국건축에 기호학적 구조의 적용에 관한연구" 1978 서울대 석사논문.
 ———, "한국 건축역사 연구의 비판과 방향 모색" 「건축역사연구」, 1호. 1992.6
 ———, "안팎구조- 한국 건축공간의 구조주의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2호.1992.12
 ———, "계제 논문에 대한 토론-전통건축 선교장의 건축이론과 계획개념 연구 (저자 김봉렬)" 「건축역사연구」, 18호 1999.3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4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三) 江陵郡, 調査資料第32輯, 193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최봉영, "한국인의 '家의 實現'에 관한 연구." 정신문 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1.
 미상 유인물, "선교장을 지켜온 안방마님을 찾아서" 선교장.

Interpretation of a Traditional Mansion, the Sunkyojang in Kangreung

Lee, Hee-Bo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Basic concept of this study is that architectural form as a material at present has meaning for the dweller's life on the past historical plane. Main method to recover history is ethnographic interview to dwellers. Secondary method is to analyze ancestors' writings, buildings in the background of the family photos, and past drawings and then to relate them with architectural form at present.

Taxonomy is a starting point: general name of the building by outside researcher is quite different from it by inside dwellers. 'Haengrang-chaе', servant quarter, has never been used for servants. Function of the haengrang went outside thatched houses at the front village. Firsthand observation or simple analyses as results of several precedent research are reexamined and criticized through this study.

The mansion has meaning when we synthesize with the site location based on farming land and tenant farmer, and decline of the Kyongpo Lake. Territoriality of the mansion is reinterpreted to 'In-Out Structure' by Yin-Yang thinking; Dwellers extend buildings gradually to outside village, surrounding rear hills, the lake, DongHae Sea, and finally goes to imaginative Taoist heaven beyond real nature through the literary life. Confucius principle, known to govern upper class house at Yi Dynasty also affect general composition of the buildings: perpetuation of the family by ancestor worship, elder dominance and male dominance, fraternity love in the extended family, charity display by reception of guests, Taoist scholarly life harmonized with nature. However, the study of the particular life and usage of the dwellers reinforces or corrects general supposition of precedent researches. Unique shape of the house has been formed by convenience of the dwellers' life style, early modernized free thought over the rigid Confucius design principle, and female power in male dominant society.